

제416회 국회
(임시회)

국방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8월1일(목)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추가)
2. 소위원회 구성의 건(추가)

상정된 안건

- | | |
|------------------------|----|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12 |
| 1. 간사 선임의 건 | 12 |
|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 13 |
| ○ 간사(김병주·강대식) 인사 | 14 |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성일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법 제52조 3호에 따라서 김병주 위원님을 비롯한 열 분의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대해 간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님.

3분 드리세요.

○김병주 위원 오늘 22대 국방위가 처음 열렸습니다. 처음 열렸는데, 지금 반쪽 열려서 너무 유감입니다. 지금 국방부장관이나 정부 측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또 저희들이 국회 국방위 전체 개회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안건은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 내용과 그다음에 현안질의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일종 위원장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국회법 52조에 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방위를 열도록 되어 있고 또 열 때는 여기에 관계된 안건 요구를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열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국회법 49조에 보면 국회는 상임위를 매월 2회씩 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방위는 지금 두 달이 됐는데도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국방위원들 모두는 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데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지요, 매월 2회씩 이렇게 열지 못한 것.

그래서 저는 이러한 책임은 위원장한테 있고 양당 간사한테 있다고 봅니다. 두 달 동안 이러한 법을 위반한, 우리 위반하도록 만든 국방위원장과 양당 간사는 오늘부터 책임을 지고 동시 사퇴를 하고 위원장을 새로 구성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보가 너무나 위중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특히 채 상병과 관련해서는 저는 왜 안 열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추정컨대…… 작년 8월 7일 날 성일종 위원장은 이종섭 장관과 이에 대한 통화를 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18회 통화하고요 앞에 앉아 있는 모 위원님도 통화를 하고요. 그래서 본인을 방탄하고 대통령실을 방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지 또 국정원의, 정보사의 블랙 리스트, 정보 참사가 이어지니까 그걸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왜 국회에서 국방위가 열리지 않은 겁니까? 수없이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보고 사과해야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부터는 태도가 바뀌어서 국방위 간사를 야당 간사가 내려놔야 열겠답니다. 완장 채워 주니까 마치 본인이, 위원장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위원장님과 우리 양당 간사는 이 두 달 동안 열리지 않은 책임을 지고 동시 사퇴합니다. 저 제안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또 여당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 영주·영양·봉화 지역구의 임종득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주 위원께서 국방위가 안 열린 책임을 지금 국방위원장한테 돌리고 있는데 이것 적반하장 아닙니까? 원래 국방위 전체회의는 7월 3일 날 열리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들과라고 하지 않았어요?

○김병주 위원 정신 나갔으니까 나갔다고 하는 거지 그게 뭐 잘못된 건가요?

○임종득 위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발언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의도된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김병주 위원 실수가 아니고 정확히 지적한 겁니다. 어떻게 한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습니까!

○임종득 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김병주 위원 한국과 일본 동맹 맺으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아니에요?

○임종득 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계시니까……

○김병주 위원 알았어요. 얘기하세요.

○임종득 위원 국회의원을 해 봤다는 사람이 말이야!

○부승찬 위원 목소리 좀 낮추세요. 목소리 좀 낮추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임종득 위원 그래서?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부승찬 위원 저도 소리 지를까요?

○임종득 위원 질러 보세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됐습니다.

임종득 위원님, 목소리 좀 낮추시고요.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목소리를 좀 낮춰서……

○임종득 위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군에서 4성 장군까지 달았던 사람이에요. 한미동맹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고 연합사 부사령관까지 했다는 사람이, 한일 간에 동맹이 아니라 군사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대변인이 한 번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과하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의도적으로 한 게 뭐냐 이거예요.

○김병주 위원 정신 차리라고 한 거예요.

○임종득 위원 그래요? 그 이후에……

○김병주 위원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조금만……

○김병주 위원 자꾸 나보고 얘기하지 말고 인신공격하지 마세요.

○임종득 위원 인신공격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그 이후에 유튜브 쇼츠를 통해서 보내 준 게 뭐니까? 국민들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병주 위원 부끄러워야 할 것은 국민의힘이에요! 아직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있어요, 보수 정당이?

○위원장 성일종 아니……

○김병주 위원 아니, 저보고 계속 인신공격하잖아요!

○위원장 성일종 아니, 인신공격이 아니라 지금 말씀……

○임종득 위원 지금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책임 문제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과만 하면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위원장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저희들 준비해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달이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처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방위에서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의도된 그 행동으로 인해서 국방위가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간 열리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이것을 왜 적반하장식으로 지금……

○위원장 성일종 임종득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시고요.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시는 거니까 가능하면 저한테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을 박선원입니다.

오늘 이렇게라도 성원이 돼서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의 남북관계, 국제 정세 그리고 온갖 종류의 오물풍선이다, 원점 타격이다 또 방첩사가 지금 정보사를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중대한 군사기밀 유출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님께서 보시더라도 늦었지만 오늘이라도 반드시 국방위가 내실

있게 진행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미 늦었지만 반드시 열려서 제대로 된 업무보고와 현안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성일종 다 주셨나요?

○박선원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제가 다 주신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면 몇 분 더 드리고 제가 마무리할 때 그 부분도…… 그리고 저는 박선원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또 그것은 제가 이따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유용원 위원님 하시고 원내대표님 하시겠습니다.

○유용원 위원 국민의힘 비례 유용원입니다.

좀 전에 박선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보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라든지 정보사 기밀 유출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안보 현안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국방위가 이제라도 열리는 게 만시지탄이지만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김병주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연된 것이 전적으로 위원장님 또 저희 국민의힘 쪽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병주 위원님과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정신 나간 의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상당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 정신 나간 의원들이 국방위에 있으면 어떻게 같이 국방위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제가 김 위원님 SNS 팔로우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국회에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것 열심히 올리시고 홍보하시는 것도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도 있고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김 위원님께서 전에 당에서 요구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중한 유감의 표명이라도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찬대 원내대표님, 오시기가 어려우셨을 텐데 국방위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대 위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국방위가 오늘 열렸는데요.

다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이번의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으로 우리 군 휴민트가 지금 전멸할 위기에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활동하는 우리 요원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기밀 유출 사실이 인지된 지 6개월이 넘었다는데 그동안 군에서는 또 보안사에서는 뭘 한 겁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군 기강 해이가 많이 풀렸다, 나사가 전부 풀렸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선거 때마다 입버릇처럼 안보는 보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업무보고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

황입니다. 철통같이 막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 최고 기밀이 적에게 다 노출돼도 쉬쉬하는 것, 이러면 가짜 보수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이번 기밀 유출 사건마저 또 전 정부 탓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당대표가 여러 가지, 전 정부 탓하고 법률 탓을 하고 있는데 법 때문에 기밀 유출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국방위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요. 지금 이렇게 무턱대고 덮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 여당이 국민께 했던 약속처럼 지금이라도 업무보고와 함께 현안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찬대 대표님, 바쁘신데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조국 대표님, 좀 바쁘시지요?

○조국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성일종 좀 계실 건가요?

○조국 위원 예, 짧게 한마디만……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추미애 대표님께서 아까부터 발언 신청하셨는데 추미애 대표님 하시고 조국 대표님 하시고.

추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안보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 대통령실이 개입된 꾀직한, 있어서는 안 되는 국방 현안이 있고 또 남북관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날로 긴장이 고조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이 터졌습니다. 또 한미일 군사협력, 방위비 분담금 협상, 오물풍선 대응 등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집권당의 무책임이 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국방위가 열려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당 간사를 물고 늘어지면서 사과를 핑계로 국방부장관을 부르지도 않은, 그런 정도로 무책임하시고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난 21년 도입된 일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상임위는 매월 3회 이상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이 터지니까 사후약방문도 못 되는 간첩법을 집권당이면서 법사위에서 반대를 해 놓고 이제 와서 도로 ‘야당이 반대한 법이다’ 이렇게 대표가 우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렸다는 격으로 이곳 상임위에서 일어난 발언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랄한 그 발언을 물고서 야당 간사 책임, 야당 간사 사과 전에는 상임위를 못 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입니다.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위원장께서는 국방위가 제대로 업무보고를 하고 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집권당 간사이자, 위원장께서도 집권당 소속이십니다. 우리 야당은 이 상임위원회가 열리기를 계속 촉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께서 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됐다는 핑계로, 같은 당 소속끼리도 열자고 하지 못한다면 같은 수준이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의 일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상임위를 통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안보에 대해서 국회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주신 말씀 제가 잘 챙겨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조국 대표님 오셨습니다.

존경하는 조국 대표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선으로 국방위원회에 들어오게 된 조국입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국방 위기 상황이 심각하고 게다가 최근에는 정보사 기밀 유출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국방위가 열리지 않은 상태라서.....

저는 이 공간에 이제 두 번째 들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들어왔을 때는 여당 위원님들 전혀 들어오지 않으셨고 오늘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왼쪽에 계셔야 될 국방부장관님, 합참의장님 아무도 안 오셔서 사실 저로서는 당황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당 위원님들께서 김병주 위원님의 사과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김병주 위원님의 사과 문제가 급한 것인지 안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 위기 현안에 대해 국회로서 따져 볼 일이 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로서는 오늘 국방부장관님 오시게 되면, 국방부장관님께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상 한미일을 준군사동맹에 준할 정도로 끌고 가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고 준조약에 해당되는 문서에 서명하시는 얘기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아무리 봐도 거의 조약에 해당되는 문서에 서명을 얘기하시면 그것은 입법부 권한 침해가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따져 보고 싶었는데 어떠한 논의도 없이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아는 바로는 22대 국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는 거의 다 열렸고 지금 국방위가 현안질의를 못 하고 있는 남은 거의 유일한, 유일한 상임위가 아닌가 알고 있는데 오늘 상임위원장님께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조국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박범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위원** 점잖게 진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법사위를 오래 했는데 거기는 너무 뜨겁고요. 그리고 국방위는 너무 험령해요. 거기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의 책임이 있습니다.

앞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김병주 위원님은 아직 간사가 아니에요. 기억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앉은 거예요. 본회의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국방위를 안 여는 것은 완전히

국방 없는 국방위, 안보 없는 국방위입니다.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를 정말 무겁게 생각하신다면 술선수 범해서 열었어야지요. 핑계예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올 때 임종득 위원님이 하도 고함을 치시길래 ‘제대로 국방위에 국방이 있을 모양이다, 안보가 있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서로 소모전만 하는군요.

그래서 오늘 정말 국방위가 이 나라의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 무겁게 다룬다는 의지가 있다면,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이 그렇게 다룰 정말 책임감이 있다면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업무보고, 현안질의 해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국방위, 정말 창피한 국방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이 우리의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을 떠나서 정말 무겁게 국민을 위한 국방위가 되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님 감사합니다.

허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출신 허영입니다.

지난 7월 3일 전체회의가 소집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야당 위원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앞서 임종득 위원께서 7월 3일 열었어야 되는데…… 야당 핑계를 대셨습니다. 그런데 여당 위원님들 한 분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일종 위원장께서도 위원장실에 계시다가 저희가 위원장 면담을 하러 갔는데 자리를 또 비우셨습니다, 당일 날은. 그리고 왜 오늘 이 자리에 국방부장관을 비롯해서 정부 관계자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전체 17개 상임위 중에서 단 한 차례 1차 전체회의를 열지 않은 상임위는 유일하게 국방위밖에 없습니다. 23일 날 전당대회가 있어서 그것까지도 이해한다고 한다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보사 요원 대량 유출 사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한미일 군사 협력의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의 적절성 여부, 방사청 중국 무인기 도입 논란, 마일즈 장비 도입 관련해서 뇌물혐의 고발사건 등등 현안이 쌓이고 쌓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전체회의를 열지 않으셨고 출석요구서조차도 왜 송부하지 않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께서……

지금 간사가 선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위원장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간사에 내정돼 있는 김병주 위원께서는 ‘사퇴하겠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애기를 해서 책임성을 스스로 인정을 하시고 국민께 사퇴 의지로 유감 표명을 하고 계신 건데 성일종 위원장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민께 유감 표명을 하셔야 되고 바로 지금이라도 출석요구서를 전달을 해서 현안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허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규백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안규백 위원** 안규백입니다.

안보와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서 우리 국방위가 지금 멈춰 서 있습니다. 상임위는 여야 합의하에 상임위가 개최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여야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위에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위원장의 정치력입니다. 그래서 정치력이 필요하고 그 정치적 여백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십니까마는 동북아의 정세랄지 또 한반도 여러 가지 현안, 안보 문제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8월 1일 날, 따져 보면 63일째 우리 상임위가 열리지 않고 이런 형국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가지고 정부 측에서 출석해서 상임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임종득 위원하고 김병주 위원께서 상당히 고성이 오갔는데 저는 여기가 육사 선후배 간의 싸움터인 줄 알았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제가 17년 국방위 하면서…… 처음 출석해 가지고 서로 간에 고성 쓰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조속한 정상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일종** 안 위원님 감사합니다.

강선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오늘을 몹시 고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 그리고 여당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보다 많은 지식과 그다음에 정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아까 안규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병주 위원님이 군에서 제가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신 분이고 개인적으로 군대 생활하실 때 매우 존경받던 장군이셨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사람을 저렇게 변하게 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난 7월 2일 날 대정부질의를 하기 위해서 초선 의원으로서 4박 5일을 거의 밤새다시피 준비했습니다. 1분 31초만 있으면 제가 할 거라고 대기석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김병주 위원님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간 제가 ‘정신이 나갔나? 정신이 나가서 군 생활을 31년 4개월 동안 할 수 있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별것 아닌 발언이지만 그 개인들이 받은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라는 그 말씀은 사과하셔야 되는 것이고 정체성을 가진 여당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변호해 주실 것이 아니라 서로 정쟁이 없는 국방위원…… 그다음에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는, 북한이라는 주적이 명확하게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국방위원들만큼은 합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대 위원님께서 이석을 하셨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군 기강이 해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일곱 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중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도 계셨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계셨고 현재 계신 문재인 대통령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분들의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 생각은 없었지만 그분들이 계실 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군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얼마나 북한이 주적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흔들렸

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인정하는 가운데 필요한 존재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게 하는 정권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국방안보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키고 여기 계신 분들……

많은 정부에서 정말 신분이 명확하지도 않은 중북 좌파들이 국가기관에 많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현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강하게 튼튼하게 글로벌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부승찬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부승찬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시병 국회의원 부승찬입니다.

조선입니다. 지역구에서 험난하게 싸웠습니다. 851표 차로 등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선영 위원 말씀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34년은 군복을 못 입었지만 역대 정부 진보·보수 정권 할 것 없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군복을 입은 데가 아닙니다. 정치의 장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사고고요. 그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은 같습니다. 국가안보라는 목적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론의 차이지요. 그렇지요?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중요하지요. 평화에 의한 평화, 대화에 의한 평화 중요합니다. 역대 정권은요 국가안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존재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대변인 고별 인터뷰할 때 했던 말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안보가 소중한 겁니다.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국방위가 왜 두 달째 열리지 않고 있습니까? 한미일 안보 협력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질책·질타할 만합니다. 우리는 입법부의 멤버들입니다. 국방부 멤버가 아닙니다. 그러면 서로 방어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정책을 클릭해 나가는 게 우리 국회 국방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국회를, 국방위를 빨리 열어서 현안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발 빨리 좀 정상화를 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감사합니다.

황희 위원님께서 말씀 안 하셨는데 마지막에 한 말씀 좀 하시겠습니까?

○황희 위원 비슷한 얘기여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공사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공사 구분을 하고, 이렇게 큰 현안들이 있는데 무슨 발언 가지고 이렇게 시비 걸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그래서 제발 공사 구분은 좀 해 가면서 일을 해야지, 앞으로도 그러면 어느 위원님이 발언 실수하고 뭐라고 그러면 국방위 안 열어요? 입으로 안보 하지 말고 현안이 이렇게……

그리고 군인이, 우리 군이 죽어 나가고 우리 정보가 다 북한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한 반도 긴장은 최대로 고조되고 있고 이러면 다 그냥 망한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망하기 직 전인데 국방위원들이 한가한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입으로 계속 안보 하고, 입으로 안보 하면 뭐 합니까? 입으로 주적 북한 찾고 안보 찾고 하면 뭐 합니까, 국방위 열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공사 구분을 제대로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마지막으로 강대식 위원님 발언 듣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21대 전반기에 국방위원회 상임위를 하면서 같이 계셨던 존경하는 동료 위원분도 계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배웠던 게 여야를 막론하고 선배 위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국방위는 여야가 없다. 국익을 위해서는 당리당락도 없다.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국가의 안보,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이렇게 선배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윗대 상임위도 하는 걸 보면 교섭단체 간에 합의하고 그런 관행과 품격과 절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현재 지금 우리 국회 상임위를 보면 일방적이고 동료 위원들 간에 존중하지 않고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많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들 스스로가 조금씩 반성을 하고 국방위만은 타 상임위보다 좀 모범적으로 관행과 또 우리가 배려, 양보 이런 게 좀 물어 나오는 그런 상임위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좀 전에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사를 사퇴하자’, 간사 언제 선임됐습니까, 사퇴를 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간사 위원 지금이라도 내려놔라 하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자신 있습니다. 아직 선임되지도 않았고요.

물론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데 충분한 일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일방적인 것보다는 협의나 합의에 의해서 회의가 개최됐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첫 회의에 저도 참석했는데……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유감의 표시라도 해 주신다면 회의는 오늘 오후에도 열릴 수 있고 다음주에도 열릴 수 있고 내일도 열릴 수 있고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것 서로 간에, 여야 간에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황 속에서 우리 상임위가 진행됐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돌아가시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고 한 분 한 분 주신 말씀들을 잘 제가 기억을 해서 또 회의 진행하는 데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승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박선원 위원님이 말씀하셨군요. 정보사 부분은 상임위가 정보위에 있기 때문에 정보사의 사령관이 국회에 참석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는 며칠 전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시면 간사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장관이 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질의를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병주 위원** 국정감사 때는 정보사령관이 왔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있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오늘 발언해 주신 여러 의견들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 7월 3일 날 정부, 다 함께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게 7월 3일입니다.

그런데 7월 2일 날 김병주 위원께서 대정부질문을 하시면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회의의 정상화를 위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본회의를 위한, 진행을 위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 날 우리 상임위가 열리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 원내 지도부에서 모든 상임위를 열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가 현안보고를 비롯한 간사선임을 비롯해서 정부 보고까지 있게 되어 있었던 그 과정을 못 한 것이지요.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방위원들께서 모여서 회의를 할 때에 굉장히 격앙이 돼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간사 내정자인데 정신 나간 의원들을 모아 놓고 어떻게 회의를 할 수 있느냐, 역지사지라고 우리 당 위원들이 ‘정신 나간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 회의가 되겠는가, 이것은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으셨고 저도 또 그 부분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 나간 의원들하고 회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김병주 위원님한테 사과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병주 위원님께서는 절대로 사과할 수 없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사과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김병주 위원님께서 끝끝내 사과를 거부하신 겁니다.

위원장으로는 그냥 계속 그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말씀드리기는 참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다선이시고 정말 인품 좋으시고 실력 있으신 우리 야당 중진 위원님한테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께서 사과를 못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사과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 그러면 간사가 지금 아직 선임이 안 되고 내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분으로 간사를 전당대회 전까지만 좀 하실 수 있도록 스위치를 해 주시면, 18일 이후에 다시 김병주 위원님께서 간사로 들어오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니 한 며칠 상간 사이에 간사만 스위치를 해서 상임위를 정상화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가 말씀을 여쭙었고 또 중진 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듣고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게 잘 안 돼서, 제가 김병주 위원님한테 이 이야기를 또 직접적으로

하기가 어려웠지만 이게 잘 안 돼서……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임위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당대회가 18일에 끝나니까 그 이후에 며칠 상간이니 다시 간사로 복귀하시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가 제안을 했고 이것을 김병주 위원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신 겁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상임위의 정상화를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여러 국방 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지극히 정당하고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가 있고 야가 있는데 상대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또 상대에다가……

상대가 같은 상임위를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모멸감 속에서 앓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저는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든 야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는 좀 격하게 하실 수 있지만 상대의 자존감을 해하거나 또 상대를 너무 배려하지 않는 이런 격한 발언들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다 주셨는데, 국회의 국방위는 그래도 다른 상임위보다는 여야가 많이 존중을 하면서 싸울 때는 싸웠어도 너무 격하게 싸우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대안을 가지고 또 여야가 때로는 충돌도 하고 대립도 할 수 있지만 감정의 선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지금 현재 간사가 선임이 안 돼 있습니다. 간사가 선임이 안 되다 보니 간사들 간에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위원회를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병주 위원님을 비롯한 열 분이 개회를 요구를 해서 오늘 열었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저는 오늘 간사 선임을 좀 하고 또 우리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안 소위에서부터 예결소위, 청원소위까지. 그래서 이 소위원회를 저희가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리고 양당 선임되시는 간사님들께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간사 선임 건에 대해서 제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떠십니까?

○안규백 위원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어요.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간사 선임의 건

(10시48분)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국회법 제71조 및 제77조에 따라서 간사 선임 및 소위 구성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간사는 각 교섭단체별로 1명씩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에 따라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분을 간사님으로 선임을 하고

자 합니다.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주 위원님을, 교섭단체 국민의힘에서는 강대식 위원님을 간사로 각각 추천을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병주 위원님과 강대식 위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9분)

○위원장 성일종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법률안·결의안 및 동의안 등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원을 각각 소관 안건으로 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소위원회의 소위원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김병주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강대식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추미애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위원님으로 각각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선원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의가 있다고 해서 약간 미안합니다.

다만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여야의 구성비로 봐서 4 대 3이라고 하는 배분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5 대 3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서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위원님, 제가 전에도 국방위원회에 있었고요. 또 다른 정무위·보건복지위에 있었을 때 의석수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늘 이렇게 다른 상임위도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법률심사든 어디든 거의가 다 합의를 해서 해 냅니다. 또 여야 간에 이견이 많은 그런 법안은 좀 뒤로 미루고 이렇게 또 국방위는 다른 상임위하고는 좀 틀려서 거의 그렇게 충돌하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성일종**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이제 간사가 선임이 됐으니까 제가 간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선원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는 아주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하고 지금은 국회 의석수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야당에 압도적인 표를 국민들께서 줬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지요.

그 의석 비율을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서 이렇다라는 것은, 지금도 관행적으로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 소위 구성은 이제 양당 간사가 정식으로 됐으니까 양당 간사 간 합의를 다시 해서 의결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면이 아주 타당하다고 보고요.

청원심사소위에 조국 위원님께서 편성돼 있는데 조국 위원님도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법률 심의나 예산 심의 그런 데로 배분을 해 주는 것도 타당한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정식 간사로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조국 위원의 의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다음 전체회의가 열렸을 때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성일종** 이 부분은 7월 3일 날 본회의가, 저희 상임위가 열리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 이게 합의가 됐었던 사항이라는 말 대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병주 간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강대식 간사님, 그러면 이 부분은 두 분이……

지금은 4 대 3이기 때문에, 사실 다수는 민주당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선원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상의를 하시겠습니까?

○**강대식 위원** 예, 그럴게요.

○**위원장 성일종**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 간사님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상의를 하셔서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의사진행발언을 이것 끝나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간사(김병주·강대식) 인사

(10시54분)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선임되신 간사님들과 소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선임되신 두 분 간사님들의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22대 국방위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간사가 선임되고 1차 열린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는 국회법대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법에는 월 2회 상임위를 월·화

중에 열도록 돼 있습니다, 소위도 그렇고요. 21대에서 일하는 국회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법이 됐는데 21대 때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방위는 국회법대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야가 날짜만 합의 정도이지, 국회법대로 월 2회는 꼭 지켜야 된다…… 그것이 국민의 그겁니다.

그래서 매월 전에 그다음 달에 열 날짜를 아예 정해 버려서 국회의원님들이 국방위도 활동하고 지역 활동도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양당 간사끼리 협의를 하고 위원장님도 적극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강대식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식 위원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입니다.

상임위원들과 머리 잘 맞대고 소통하면서 우리 국방위가 모범적인 상임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그러면 두 분의 간사님들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사진행발언만 하셨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박범계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성일종 돌아가시면서 인사말씀 한 말씀씩 하시겠습니까?

○박범계 위원 인사말씀 말고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성일종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범계 위원님께서…… 그러면 김병주 위원님께서 하시고 박범계 위원님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박범계 위원 먼저 하세요.

○김병주 위원 이제 양당 간사가 정해졌으니까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양당 간사가 좀 합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방부장관과 국방 관련 기관이 안 왔는데, 오후 13시나 2시부터 오게 해서 현안질의를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 합의를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 안 된다면 다음 주 초라도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합의를 하고 오늘 오후에 그대로 할지 또는 다음 주 월·화 중에 할지 이것을 오늘 전체회의 기간에 정해 버려야……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아주 바쁩니다. 그래서 다음주 일정이 빨리 결정이 되는 거지요.

저는 오늘 오후라도 국방부장관을 2시쯤 오게 해서 그동안 밀렸던 안보 현안의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범계 위원님.

○박범계 위원 채 해병 특검 문제라든지 외압 건에 대해서 법사위가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일종 위원장님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사법원이 법사위 소관이기 때문에 군사법원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을 법사위에서 늘 다뤄 왔습니다. 군사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가 다루는 이유지요.

정보사 기밀 유출 건은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정보위에서 정보단이 정보의 시각으로 기밀 유출 건을 다루는 것과 국방위에서

국방과 안보의 시각으로 기밀 유출 건을 다루는 것은 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사야말로 우리나라 국방부 산하의 중요한 부대 아닙니까? 중요한 조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께서 이 정보사 기밀 유출 건을 현재 이 국방위에서 다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으로 보시고 이 부분을 다루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또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우리 국방위가……

○허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의사진행……

○허영 위원 위원장님이 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말씀하시지요.

○허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제가 오늘 정부 관계자에 출석요구서를 왜 전달을 안 하였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님께 여쭙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안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소위 구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잠시 정회를 하시더라도, 왜냐하면 소위가 구성이 되어야…… 소위는 월 3회 이상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쌓여 있고 그래서 소위라도 신속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빨리 간사 협의를 통해 가지고 소위 구성을 오늘 내로 해서, 잠시 정회를 거쳐 가지고 소위 구성 건도 오늘 내로 좀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성일종 존경하는 허영 위원님, 정부가 국방부장관을 비롯해서 7월 3일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고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창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간사부터 선임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두 분 간사님께서 협의를 해 주시면 그때 정부가 나와서 위원님들이 현안에 대해서 여쭙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

○추미애 위원 위원장님께서 미리 결심을 하시고 나오신 것 아닌가 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마무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이 회의가 그냥 간사 뽑고 소위 구성에 대한 의견을 들으시고 그냥 적당히 마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즉 위원님들께서 이 국방위가 조속히 열려야 된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간사까지 뽑으셨으면, 여당 위원님들께서 심기가 불편한 말씀은 발언으로 같음하신 거나 마찬가지로요. 그러면 지금 허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이라도 오후에 국방부장관이나 불러서 업무보고 청취하고 또 긴급 현안질의를 하고 하는 것이 국회로서는, 상임위를 이제 처음 연 국방위로서는 제대로 시작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소위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안 물어보신 채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단을 꾸리셨는데, 저는 아까 한 위원님께서, 국회가 총선 민의를 받들어서 상임위도 구성된다

면 5 대 3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저도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이렇게 올려 놓으셨지만 제 의견을 들어 본다가나 하는 절차가 없이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요. 어차피 위원회가 월 3회씩 열리게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렇다면 저도 일하는 국회의 일원으로서 법안심사소위나 예산심사소위에 좀 소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일종**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은 국회에서 최다선이시고 당대표도 하시고 정말 많은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소위 구성하거나 이런 것 할 때 위원장이 전혀 관여 안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비 간사님들께서 의견들이 있으셨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정부가…… 지금 이 문제를 자꾸 갑론을박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월 3일 날 정상적으로 열렸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텐데, 어쨌든 지나간 걸 가지고 지금 자꾸 저희가 이걸 되풀이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주신 말씀을 간사님들하고 잘 협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선원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박선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정보사령부는 정보위 소속이고 국회 국방위에 온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제가 정보위 간사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정보위에서 정보사령부를 다루는 것은 국가정보원에서 정보 관련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일종의 기획조정 대상 기관으로서 정보사령부를 다룹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사령부는 국방정보본부와 함께 국직 부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상당수가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예산상의 관리이기 때문에 정보위에 왔지만 실제 활동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국직 부대거든요. 그래서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령부는 적어도 이번 첫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필참하셔서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옳다.

국가 안보의 시작은 정확한 정보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와 현안질의에는 꼭 국직 부대인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령부가 오시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 기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위원장님께서 관리하시고 두 분 간사님께서 정하실 문제이지는 하나 워낙 중대한 문제라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위원장 성일종** 박선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아마, 그동안 정보위 같은 경우도 다 비공개로 하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보면 오픈되어 있는 국방위에서는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간사님들께서 좀 협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간사님께서 협의를 하시도록 하고요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예.

○**위원장 성일종**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5인)

강대식 강선영 김병주 박범계 박선원 박찬대 부승찬 성일종 안규백 유용원
임종득 조 국 추미애 허 영 황 회

○청가 위원(2인)

김민석 한기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전문위원 류승우